

## 2019년도 1학기 <한국과 세계> 중간고사 시험문제 예제

- ※ 아래 문제 가운데 7문제(사실기술형 5, 서술형 2)를 시험당일 출제합니다.
- ※ 사실기술형은 각 배점 10점, 서술형은 각 배점 20점입니다.
- ※ 답안이 한 줄도 없는 문제나 문제만 기술되어 있는 답안은 0점 처리됩니다.
- ※ 2장 이상의 답안을 쓸 때에는 반드시 학번과 이름을 각각 써야 합니다.
- ※ 시험 당일에는 미리 작성한 답안지나 참고문헌, 강의노트를 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 ※ 시험답안은 강의안+참고문헌을 기본으로 하되, 출제문제에 부합하는 답안이면 강의자가 제시한 참고 문헌이 아닌 개인이 찾은 자료를 참고해도 좋습니다.
- ※ 수업 듣는 친구들이 함께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은 권장하나, 시험답안지에서 2문장 이상이 동일하면 모두 해당문제 0점으로 처리됩니다.
- ※ 시험답안은 서술형 문장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점이 있습니다.
- ‘...했음’(×) ‘...했다.’(○)

### ● 사실기술형 문제

#### 1)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과정을 설명하시오.

상해는 교통이 편리하고, 광둥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위치적 조건이 우수했다. 1919년을 기점으로 상하이에 한국과 해외 각국의 독립지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1919년 1월 파리강화회의로 파견된 김규식은 열강들의 냉담한 반응에 국내 독립 선언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고, 3.1 운동 직후에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할 의결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독립운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국내외 정부수립계획이 진행되었다.

1919년 3~4월에 걸쳐 대한국민의회, 대한민국임시정부, 한성정부 등 8개의 임시정부 수립 움직임이 진행되었다. 4월 11일, 의정원 회의에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채택한 뒤 선거를 통해 국무원을 구성한 후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이후 (1919년 9월) 대한국민의회와 한성정부는 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통합되었다.

## 2) 1919년 4월 발표된 ‘대한민국임시헌장’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대한민국임시헌장은 1919년 4월 11일 발표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첫 헌법으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정치 체제를 민주공화제로 명시하였다.

1조부터 10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4조                               종교, 언론, 출판, 결사, 집회 ... 등의 자유를 가진다.

제5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6조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다.

제7조 대한민국은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제8조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公娼制)를 전폐한다.

제10조 임시 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이 중 제3조와 제5조는 선진적인 부분으로 평가된다. 제 8조를 통해서는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였다.

3) 1945년 8월 15일 일본 패망 직후 결성된 '건국준비위원회'에 대해 설명하시오.

조선 총독부는 패망 전 여운형에게 패망 후 일본의 안전한 본국 귀향을 위해 조선의 치안권, 행정권을 이양 받을 것을 부탁한다. 이에 여운형은 정치범 석방, 치안유지와 정치활동 보장 등 5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이를 수락한다. 이렇게 석방된 독립 운동가들과 각 지방에서 활동하던 독립 운동가들은 일본의 패망을 전망하고 건국준비위원회를 준비한다. 일본 패망 직후 건국준비위원회는 전국적으로 결성이 되었으며, 미국의 진주 이전까지 전국적으로 140여개의 지부가 구성되었다.

건국준비위원회는 미국에게 정부수립을 위한 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선포하고, 일부 지역지부들이 인민위원회로 전환한다. 그러나 미국이 남한에 진주하고 나서 미군정의 '맥아더 포고령 1호'로 인해 건국준비위원회 등 단체들이 인정되지 않았고, 건준위는 강제 해산되었다.

4) 1945년 '3·8선'이 그어진 배경과 당시 시점에서 '3·8선'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시오.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독일의 항복 이후 3개월 내로 소련이 태평양 전선에 참전하기로 결정된다. 7월, 미국은 원자폭탄 실험이 성공한다. 이에 미국은 포츠담 회담에서 소련에게 핵이 있음을 알린다. 그 후 8월에 미국은 태평양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일본에 원자폭탄을 두 차례 투하한다. 태평양으로 세력을 확장하고자 했던 소련은 독일의 항복 이후 태평양 전선에 참여하기 위해 8월 8일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폭풍 작전을 수행한다. 이에 소련은 (얄타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태평양전선에 참여한다.

소련이 태평양전선에 참여하자 1945년 8월 11일 미국은 3부조정위원회에서 38선을 결정한다. 한반도를 남진하던 소련은 38선 아래로는 남진하지 말라는 미국의 통지를 받고 남진을 멈춘다. 그 후 9월 태평양 지역 연합군 최고사령관 맥아더의 일반 명령 제 1호로 38선이 공식화된다.

원폭 투하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한반도에 별 관심이 없었다. (소련도 유럽이 우선순위였다.) 미국이 제일 큰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일본의 항복이었다. 한반도 전역, 중국, 태평양 여기저기에 일본군은 흩어져 있었다. 이 때 3.8선의 기능은 일본군이 항복을 하고 무장해제를 시키는 라인이었다. 처음에 3.8선을 그었던 목적은 외교적 전략이 아닌 군사전략 상의 계획이었다.

5) 제2차 세계대전(1939.09) 발발 이후 주요 강대국 간에 진행된 회담들 중 ‘조선 문제’를 다룬 회담들과 그 내용에 대해 정리하시오.

1943.11 **카이로 회담**은 주로 일본에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서 합의하였고, 한국 독립에 대한 문제가 처음으로 언급된 회담이다. 카이로 선언에는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주독립한다는 내용이 별도로 명시되어있다.

1945.02 **알타 회담**에서 소련이 대일전 참전을 약속한 것이, 일제 패망 후 조선이 38선을 경계로 미소 양국에 의해 분할 점령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제안된 신탁통치 역시 루스벨트 대통령이 알타회담에서 제안하였다.

1945.07 **포츠담 회담**에서는 포츠담 선언이 발표되었다. 포츠담 선언의 8조에는 카이로 선언의 모든 사항의 이행과 함께 한반도의 독립을 확인하는 내용이 있다.

1945.12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는 조선문제 결정서를 별도 분리하였다. 여기에는 조선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미소공이 설치될 것이고, 최고 5년 기한으로 신탁통치를 하고, 미소 양군 사령부 대표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이 있다.

6) 1945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조선 문제에 대한 결정서’ 내용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시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조선 문제에 대한 결정서’는 총 4가지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1항: 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임시정부 건설,

제 2항: 임시정부 수립을 돕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

제 3항: 임시정부 수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미·소·영·중 4개국이 최대 5년 이내의 신탁통치를 실시할 것,

제 4항: 2주 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소 양군 사령부 대표회의를 소집하는 것이다.

미국의 신탁통치안과 소련의 즉시 독립안이 절충된 결정이다. 최종적으로 ‘5년 이내 신탁 통치안’이 결정되긴 했지만,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한 임시정부 건설안이 함께 결정된 내용이다.

7) 샌프란시스코 강화회담 준비 과정에서 미국의 '독도'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와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샌프란시스코 조약 1~5차 초안의 Article 2(a)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한국의 영토로서 독도가 명시돼 있었다.

주일정치고문은 '독도에 대해 재고하라'라는 전보를 미국에 보낸다. 맥아더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주장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표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6차 초안과 영미합동초안, 최종 조약 문서에서는 해당 조항에 독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국정부는 이 조약 내용 관련 미국 정부에 '요청서'를 전달하고, '여러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을 확인한다' 라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 때 미국의 딘 러스크는 이에 대해 합중국 정부는 한국의 제안에 동의할 수 없으며, 독도는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다고 판단하는 내용의 서한이 전달되었다.

8) 샌프란시스코 조약(1951.09)에 명시된 대일 청구권 포기 조항에 관하여, 당시 회담에 참여했던 각 국가들의 상이한 대응방식에 대해 정리하시오.

당시 회담에서는 조약에 서명하고 청구권을 포기한 국가들도 있었지만, 모든 서명국이 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인도네시아**는 조약에 서명했으나 국회에서 비준을 거부해 이후 일본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청구권을 행사했고, 전쟁배상금을 받은 후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필리핀과 남베트남**은 조약에 서명했으나 청구권 포기를 거부했고,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청구권을 행사했다.

**버마**는 회담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일본과 양자협상을 통해 청구권을 행사했다.

**네덜란드**는 왕복 서한으로 밀약을 체결했고, 이후 '사적 청구권 문제해결에 관한' 일본-네덜란드 의정서가 체결되었으며, 일본 측은 네덜란드에 1000만 달러의 위로금을 제공했다.

9)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이 개입한 이후에, 미국과 소련, 중국의 한국전쟁에 대한 입장에 대해 정리하시오.

**미국**은 중공군이 북한 측에서 참전하게 되자, 세계전쟁으로 확전 될 것을 우려해 한반도 내에서의 제한전쟁으로 끝낼 것을 주장했다. 이는 미.소.중. 모두가 공통으로 생각한 바였다.

**소련**은 북한의 남침 결정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는데, 김일성은 지속적으로 소련에게 남침 승인을 요청했고, 모스크바에서 이루어진 김일성과 스탈린의 회담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며 군사력을 제공하기로 한다. 하지만 유엔군 전쟁 개입 후 미국과 정면 대립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미국이 소련을 적대할 명분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다.

**중국**은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전체 한반도를 장악할 경우 친미 정권과 국경을 맞대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국공내전 과정에서 북한군의 도움을 받아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하게 된다.

10)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에 이양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환수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군의 작전지휘권을 맥아더(유엔군 총사령관)에 이양했다. 이때 넘어간 작전통제권은 휴전 후에도 되찾지 못했다.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작전통제권이 이양된 것을 확인했다.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고 한국군이 작전통제권 행사에 일부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1988년부터 작전통제권 환수 협상을 개시하여,

1992년 말 '평시작전통제권' 이양에 합의하였고,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었다.

● 서술형 문제

1) 트루먼 독트린(1947.03), 유럽에 대한 마셜플랜 및 북대서양조약기구 설립, 일본에 대한 역코스 정책을 연계하여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세계구상 변화를 설명하시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세계구상 변화 = 대소 외교 정책의 본격화’ 라고 할 수 있다.

원래 1945년부터 1946년까지 미국의 대소 외교 정책은 비교적 불명확한 편이었다. 미국은 소련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1946년 후반, 중국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의 승리에 소련의 도움이 컸고,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 동남아시아 지역 공산화에 대한 우려 커지고, 소련이 핵 개발에 성공하자 → 미국은 본격적으로 소련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세계 구상이 변화했다.

1) 트루먼 독트린은 공산체제 반대를 보여준다. 암묵적으로 소련과의 냉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2) 마셜플랜은 ‘유럽 대상 전후 지원 정책’이다.

유럽 지역에 공산주의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지원을 해주는, 즉 소련에게 유럽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추진한 정책. 트루먼 독트린의 실행 형태로 냉전과 관계가 있다.

3) 북대서양조약기구 : 역시 유럽을 미국 우호적으로 만들려는 목적이다.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력이 약해진 연합군들이 소련에 의해 위협받을 것을 대비했다.

4) 일본 역코스 정책 : 전범국 일본의 탈군사화 · 민주화를 목표로 하고 있던 미국은,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의 확산에 태평양 · 아시아 지역을 모두 잃을 것을 우려하였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대의 중심을 중국에서 일본으로 변경했고, 일본의 경제재건에 중점을 두었다.

- 즉 이 모든 것은 소련을 견제하고, 세계에 공산주의 사상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뤄졌다.

2)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책 변화와 조선 주둔 미군정의 점령정책 변화를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1946년 6월 [대한정책], 1947년 3월 '트루먼 독트린'과 연계하여 설명하시오.

- ①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 신탁통치안 발표 : 미국과 소련이 함께 한국에 임시정부 하나를 수립해주고 미국 소련 영국이 일정기간 동안의 신탁통치를 통해 민주국가 설립을 돕겠다. **[대한정책]** : 미·소 합의를 전제로 함
- ②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이 동유럽을 먹음
- ③ 미국은 이렇게 된 이상 아시아태평양지역(중,한,일)을 먹어야겠다고 결심. 미국은 초기에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를 구상하였다.
- ④ 근데 중국 먹는데 문제가 생김. 중국이 소련 도움 너무 많이 받아서(중국 국-공 내전에서 소련의 도움)먹기 힘들 것 같음. 그래서 중국은 소련에게 양보(**미국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정책 변화**)
- ⑤ 미국이 제대로 먹은 건 일본 뿐 → 한반도를 먹을 수 있나? → 이미 3상회의에서 소련이랑 같이 한반도 먹기로 함 → 의견대립 → 소련이랑 같이 한반도 통치 못할 것 같음(신탁통치안의 결렬) → 남한을 포기할 수 없음 - 이유 : 한반도를 다 소련이 먹으면 일본(미국 편)과 소련이 정면으로 마주하게 됨 → 싫음 → 북한과 일본 사이에 남한을 방패로 두자!
- ⑥ 남한도 중요하다(**조선 주둔 미군정의 점령 정책 변화**). 남한에 따로 임시정부 세우는 것을 도와줘야겠다.
- ⑦ 미-소 냉전의 본격적 시작(**트루먼 독트린**). 이제 한반도가 분단을 막을 길은 없음. 결국 소련이 북한, 미국이 남한 먹고 각각 정부가 따로 수립됨 : 분단의 시작



3) 북한이 '1950년 6월 25일'에 남침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당시 국제정치적 상황인식과 대한민국의 국내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나누어 설명해 보시오.

국제적으로,

1949년 8월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10월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되며 북한은 더 안정적이고 강력해진 군사적 지원을 얻게 된다. 1950년 1월 미국은 (한국에 대한 정책변화) 애치슨 라인을 발표하였다. 이 미국 방어 경계선에는 한국과 대만이 제외되어 있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은 일본에만 군대를 주둔시키면 한국이 커버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 이에 김일성과 스탈린은 남침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판을 하게 되었다.

국내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제주 4·3사건과 여수·순천사건이 발생하였다. 반민특위가 해체되었으며 농지개혁이 추진되었으나 개혁안이 국회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국내 정치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김일성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높지 않고, 남한의 국민이 북한의 군대를 환영할 것이라는 오판으로 이어지게 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무렵, 소련군과 미군 모두 철수를 하게 된다. 김일성에게 군사력 지원을 약속한 소련과 달리 미군은 무기지원을 하지 않고 철수했다. 전쟁 전 병력을 비교하면 북한이 월등히 뛰어나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 북한에 대한 소련과 중국의 입장 변화가 있었고, 대한민국 내 정치적 불안, 그리고 군사적 측면에서 우세하다고 판단한 북한은 전쟁을 결심하였다.

북한은 소련의 승인을 받아, 1950.6.25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4) ‘한국전쟁’이 이후 한반도에 남긴 영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한국전쟁은 한반도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전쟁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것이다. 있어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한국전쟁은 그러지 못했다. 일제강점기 동안만 해도 한반도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그 피해가 모두 복구되기도 전에 일어난 한국전쟁은, 더 피해가 컸다.

전쟁은 3대를 간다, 는 말이 있다. 전쟁의 트라우마는 현재 진행 중인 문제이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국가에 대한 신뢰가 낮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이별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영향은 아직도 남아있다. 가능한 빨리,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전쟁의 아픔이 회복된 한반도가 되면 좋겠다.